

● [윤리와 사상]

1. 노자의 기본 관점 파악 [2점] [정답] ①

제시문은 노자의 주장이다. 노자는 인위적인 규범과 제도를 사회 혼란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삶을 강조하였다. ① 노자는 무위자연의 모습을 상선약수(上善若水)로 설명한다. 물은 다투지 않는 부쟁(不爭)의 덕과 여러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처하는 겸허(謙虛)의 덕을 상징한다.

② 성즉리를 주장한 주자의 관점에 해당한다. ③ 노자는 타고난 본성대로 살 것을 주장한다. ④ 유교에서 강조하는 삶의 태도이다. ⑤ 불교에서 강조하는 삶의 태도이다.

2. 공자와 순자 사상의 비교 [3점] [정답] ④

같은 공자이고, 음은 순자이다. ④ 공자는 내면적 도덕성인 인(仁)의 회복을 강조한데 비해,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보고, 인의(仁義)의 도덕을 실현하려면 외적인 행동을 규제하는 예(禮)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인위를 일으켜 본성을 교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순자만의 주장이다.

① 맹자의 주장이다. ③ 순자는 내면적 도덕성의 회복을 주장하지 않았다. ⑤ 한비자의 주장이다.

3.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본 입장 파악 [2점] [정답] ①

제시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다. ㄱ.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과도함과 부족함의 중용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ㄴ.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감정은 중용의 상태를 가질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예를 들면 파렴치함이나 절도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이기 때문에 중용의 상태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ㄷ. 교육을 통해 얻어지는 덕은 지성적 덕이다. 품성적 덕은 올바른 행동의 습관화를 통해 획득된다. ㄹ. 용기는 무모와 비겁의 중용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용기는 두려워할 만한 것을 당연한 동기에서, 당연한 모양으로, 당연한 때에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4.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에 대한 이해 [2점] [정답] ①

제시문은 쾌락주의자인 에피쿠로스의 주장이다. (첫 번째 관점) 에피쿠로스는 명예에 대한 욕망, 재물에 대한 욕심과 같은 비자연적이고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는 멀리할 것을 주장하였다. (두 번째 관점) 에피쿠로스는 "사려 깊고 고상하며 정의롭게 살지 않고서는 즐겁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대로 즐겁게 살지 않고서 사려 깊고 고상하며 정의롭게 사는 것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며, 이성적이며 정의로운 삶과 즐거운 삶을 긴밀히 연결하여 강조하였다.

(세 번째 관점)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얻기 위해서는 욕망을 절제하며 살아야 한다고 보았으며, 일체의 감정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네 번째 관점) 에피쿠로스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는 최소한으로 충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5. 장자의 사상이 지닌 특징 파악 [2점] [정답] ⑤

제시문은 장자의 주장이다. 장자는 "천하를 자연에 맡긴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천하를 다스려야 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인위적인 정치를 비판하였다. ⑤ 제시문에서 나타났듯이, 장자에 따르면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기쁘게 하는 것도 모두 인위(人爲)로써 그들의 본성을 흐리게 한다. 장자는 노자와 마찬가지로 인위적인 다스림이 없는 다스림, 즉 무위의 정치[無爲之治]를 참된 정치로 보았다.

①, ④ 유교의 입장이다. ② 순자의 입장이다. ③ 삼독(三毒)의 제거는 불교에서 주장한다.

6. 민주 사회주의의 입장 파악 [2점] [정답] ⑤

제시문은 민주 사회주의 사상이 반영된 '프랑크푸르트 선언'의 일부 내용이다. ⑤ 민주 사회주의는 인간의 기본적 필요는 생산 성과의 분배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민주 사회주의는 중요한 부문 예컨대 농업, 수공업, 소매업, 중공업 등에 있어서의 사적 소유를 인정한다. ② 민주 사회주의가 '프랑크푸르트 선언'에서 천명한 내용이다. ③ 민주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사회주의가 달성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 또한 오직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④ 민주 사회주의는 사회의 경제적 목표가 완전 고용, 보다 높은 생산, 생활수준의 향상, 사회 보장 및 소득과 재산의 공평한 분배에 있다고 본다.

7. 정약용의 사상 이해 [3점] [정답] ②

제시문은 정약용의 주장이다. ㉠은 사단(四端), ㉡은 사덕(四德)이다. 정약용은 성기호설을 제시하면서, 인간의 본성을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기호(嗜好)로 보았다. ② 정약용은 성리학의 단서설(端緒說)을 부정하고 단시설(端始說)을 제시하였다. 즉, 사단은 사덕의 존재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단서가 아니라 인의예지를 형성하기 위한 출발점[始]이라는 것이다.

① 정약용은 사단을 이치(理)로 보지 않았다. ③ 이(理)에 대한 성리학의 관점이다. ④, ⑤ 정약용에 따르면 사덕은 타고난 본성이 아니라 사단을 확충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다.

8. 혜능과 지눌 사상의 비교 이해 [2점] [정답] ⑤

같은 혜능이고, 음은 지눌이다. ⑤ 선종의 대표자인 혜능은 우리가 본래 하나이며 완성된 부처라는 것을 직관해야 한다는 돈오(頓悟) 사상을 주장하였다. 지눌은 자신의 불성을 단박에 깨달아도 어리석음의 습성은 단번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온전한 부처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행 과정이 필요하다는 돈오점수(頓悟漸修)를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혜능과 지눌 모두 자신의 본성에 대한 깨달음은 단박에 얻어진다고 주장하였다.

①, ④ 지눌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②, ③ 혜능과 지눌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9. 데카르트의 경험에 대한 입장 이해 [3점] [정답] ②

(가)는 데카르트의 주장이다. (나)의 가로 낱말(A)는 '경세치용', (B)는 '실험'이므로 세로 낱말(A)는 '경험'이다. ② 데카르트는 감각적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은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단편적이고 우연한 것이어서 명백한 진리로 믿을 수 있는 것이 못 된다고 보았다.

①, ③, ⑤ 데카르트의 경험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없다. ④ 데카르트에 따르면 경험은 단지 주관적 지식을 얻게 할 뿐이다.

10. 이항과 이이의 사상 비교 [3점] [정답] ①

같은 이이, 음은 이항이다. 이항은 사단은 이(理)가 발한 것이고 칠정은 기(氣)가 발한 것이라는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제시하였다. 이에 비해 이이는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가 발하여 이가 탄 것이라는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을 제시하였다. ① 이항과 이이 모두 측은·수오·사양·시비의 사단을 성(性)이 마음에서 발현된 정(情)으로 보았다.

② 이이는 '예', 이항은 '아니요'라고 대답할 질문이다. ③ 이이와 이항 모두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다. ④ 이이는 '아니요', 이항은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다. ⑤ 이이의 입장으로 이항이 '아니요'라고 대답할 질문이다.

11. 아우구스티누스의 악에 대한 관점 파악 [3점] [정답] ④

제시문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완전한 신이 창조한 세계에 어떻게 악이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많이 고민하였는데, 그가 내린 결론은 악(惡)은 하나의 실체가 아니며 선(善)이 결여된 상태라는 것이다. 즉 악은 선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기생적인 성격의 것에 불과하며,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악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자유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ㄴ.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악은 신이 창조한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신이 창조한 자연적 본성과 질서가 파괴된 상태일 뿐이다.

12. 주자와 왕양명의 기본 관점 파악 [3점] [정답] ③

같은 주자이고, 음은 왕양명이다. ③ 주자는 선후(先後)를 논하면 앞이 먼저이고 경중(輕重)을 논하면 행함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① 주자에 따르면 격물이란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궁구(窮究)하여 그 지극한 곳에 이르지 못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② 왕양명에 따르면 격물이란 마음의 바르지 못함을 바로잡아 바름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④ 왕양명은 지행합일설을 주장하며 지는 행의 시작이고 행은 지의 완성이라고 주장하였다. ⑤ 주자는 인간을 포함한 만물에 이치가 품부되어 있다고 보았고, 왕양명은 마음의 본체이자 천리(天理)인 양지(良知)의 적극적인 발휘를 강조한다. 따라서 '마음에는 하늘의 이치가 품부되어 있다.'라는 것은 주자와 왕양명의 공통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13.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에 대한 이해 [2점] [정답] ④

같은 벤담이고, 음은 밀이다. 벤담은 행위의 옳고 그름은 오직 행위로 인해 생겨날 쾌락과 고통의 양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질적 공리주의자인 밀은 쾌락에도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고, 쾌락을 질적으로 고상한 정신적 쾌락과 질적으로 저급한 육체적 쾌락으로 구분하였다.

①, ⑤ 밀에 비해 벤담이 강조할 입장이다. 벤담은 쾌락을 양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생산성, 순수성, 범위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다. ② 벤담과 밀 모두 강조하는 입장이다. ③ 칸트의 입장이다.

14. 흄스의 윤리 사상에 대한 이해 [2점] [정답] ③

제시문은 흄스의 주장이다. 흄스는 사회 계약설의 입장에서 국가의 성립 과정을 설명하였다. 즉, 자연 상태에서 인간들은 저마다 자신의 생존과 이익만을 추구하고, 그 결과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스스로의 생존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 계약을 맺어서 법과 규범을 만들고, 이것을 집행하기 위한 정부를 세우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 법규의 위반자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주권자에게 절대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③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며, 인간의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국가가 형성된다.



15. 듀이의 기본 관점 파악 [3점] [정답] ②

제시문은 듀이의 주장이다. 듀이는 일상생활에서의 유용성을 중시하여 사회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유용한 가치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ㄱ. 듀이는 도덕이나 윤리도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이므로, 고정적이고 절대적

인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듀이가 보기에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르. 듀이는 정적인 성과와 결과보다는 성장과 개선과 진보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나. 듀이는 성장 그 자체가 유일한 도덕적 목적이 라고 하였다. 드. 듀이는 도덕을 인간과 환경의 상호 작용의 산물로 본다.

같은 내용 다른 유형 문항

서양 사상이 감, 을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도덕은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인 어떤 정서를 함축 하는데, 이는 동일한 대상을 우리 모두가 일반적으로 시인하도록 만들며 모든 사람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이 대상과 관련된 의견과 판단의 일치로 보이도록 만든다.
을: 도덕은 의사의 처방전처럼 적용해야 할 일련의 규칙이 아니다. 도덕적 지식의 가치는 결정되어 있지 않고 당면한 상황을 해결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도덕에 있어서는 정적인 성과와 결과보다는 성장과 개선과 진보의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 ①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는 존재하는가?
- ② 도덕적 판단에 있어 유용성이 중시되는가?
- ③ 이성으로 도덕적 행위의 동기가 될 수 있는가?
- ④ 불변의 진리는 연역적 방법을 통해 파악되는가?
- ⑤ 지식과 도덕의 내재적 가치를 중시해야 하는가?

갑은 흄이고, 을은 듀이이다. 흄은 도덕적인 감정이 모든 인류에게 공통된다고 보았다. 듀이는 일상생활에서의 유용성을 중시하면서, 지식은 실제 생활에 유용하다고 검증될 때에만 참이라고 보았다.

정답 ②

16. 플라톤과 마르크스의 사상 비교

[2점] 정답 ②

갑은 플라톤이고, 을은 마르크스이다. 플라톤은 철인이 통치하며, 군인과 생산자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각각의 계급에 알맞은 덕을 갖추고 실천하는 국가를 이상 국가로 제시하였다. 마르크스는 공산 사회를 이상 사회로 제시하였다. 여기서 마르크스의 공산 사회는 국가가 소멸된 사회이다. 따라서 국가 소멸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정도(X)는 을이 강하고 (㉠, ㉡, ㉢), 계급 없는 평등한 사회의 실현을 강조하는 정도(Y)도 을이 강하며(㉣, ㉤, ㉥, ㉦), 모든 사람의 재산이 공유된 사회를 추구하는 정도(Z) 역시 을이 강하다(㉧, ㉨). 따라서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은 ㉤이다.



17. 롤스와 왈처의 사상적 입장 이해 [3점] 정답 ②

해설

갑은 롤스이고, 을은 왈처이다.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베일을 쓴 합리적 개인들이 도출한 정의의 원칙에 따라 사회적 가치를 분배해야 한다고 보았고, 왈처는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는 서로 다른 분배의 기준과 절차, 그리고 다른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ㄱ. 갑은 타고난 재능을 사회적 자산으로 본다.
↳ 롤스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차등의 원칙을 정의의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개인의 타고난 재능을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보았다.

ㄴ. 을은 복합적 평등은 전제(專制)가 없을 때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 왈처는 사회적 가치들이 자신의 고유한 영역 안에 머무름으로써 복합 평등이 실현될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는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하였다. 왈처는 복합적 평등은 전제가 없을 때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전제란 어떤 영역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 다른 영역의 재화까지도 쉽게 소유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오답 피하기

ㄷ. 갑은 권력과 권한은 분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 롤스는 소득과 부, 권력과 권한 등 기본적 가치들을 주요 분배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

ㄴ. 을은 돈과 상품은 기회의 공정성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고 본다.

↳ 왈처는 돈과 상품은 자유 교환에 따라, 공직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과 기회의 공정성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내용 다른 유형 문항

사회사상이 감, 을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갑: 모든 사람이 동등한 자유를 최대한 누리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며, 최소 수혜자가 최대 이익을 보장받게 될 때 정의가 달성될 수 있다.
을: 특정 영역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지위를 가지고 다른 영역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수 없는 복합 평등이 실현될 때 정의가 달성될 수 있다.

- ① 복지 증진은 기본적 자유 보장보다 항상 우선되어야 하는가?
- ② 모든 사회적 가치는 개인의 필요에 따라 분배되어야 하는가?
- ③ 정의의 원칙은 가상적 계약 상황에서 도출되어야 하는가?
- ④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만 하면 분배 정의가 실현되는가?
- ⑤ 정의가 실현되어도 경제적 불평등은 존재할 수 있는가?

갑을 롤스, 을은 왈처이다. 이들은 정의가 실현된 사회에서도 사회적 ·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답 ⑤

18. 롤스와 왈처에 대한 노직의 입장 파악

[2점] 정답 ④

제시문은 노직의 주장이다. 노직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할 것을 강조하는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를 제시하였다. ④ 노직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상관없이 사회적 재화를 재분배하는 복지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부정의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왈처는 안전과 복지라는 가치는 필요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복지 국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①, ② 롤스와 노직의 공통된 입장이다. ③ 왈처의 입장이다. ⑤ 노직은 최소 국가를 지향하였다.



19. 아우렐리우스와 스피노자의 사상 이해

[3점] 정답 ⑤

갑은 스토아 사상가인 아우렐리우스이고, 을은 이성주의 사상가인 스피노자이다. ⑤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은 자연을 창조한 인격적 신이 아니라 자연이다. 스피노자는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자연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고 보았다.

①, ② 스토아학파에서는 이성을 인간과 신, 세계의 본성으로 보고, 인간은 오직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 정념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며, 세상을 긍정하고 자연의 섭리와 자신의 운명에 순응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③ 스피노자는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관조하는 데서 오는 행복이 인간에게 가능한 최고의 선이라고 보았다.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 즉 자연의 질서를 이성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정념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면 인간의 덕과 행복이 일치하게 된다는 것이다. ④ 스피노자는 신, 즉 자연을 이성적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기계로 보고,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의 필연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알짜 개념

스토아학파와 스피노자의 사상 비교

스토아학파	스피노자
이성 중심, 자연의 필연적 질서 인정함, 범선론, 정념에서 해방된 삶 추구	
아파테이아: 부동심, 이성에 따름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정신 상태, 정념으로부터 해방된 상태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 이성을 통해 자연의 질서를 파악하고 마음의 불안 공포, 동요와 같은 정념에서 벗어난 이성적 관조의 삶을 강조

같은 내용 다른 유형 문항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공통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갑: 자연에 따르는 삶이란 이성에 따르는 삶을 의미한다. 우주의 법칙을 깨닫는다면 어떤 상황에도 동요하지 않는 정신 상태[apatheia]에 도달하게 된다. 을: 자연은 필연적 질서에 따라 구성된 거대한 기계이다. 우주의 모든 일은 신에 의해 결정된 자연 법칙에 따라 발생하며 인간은 신의 유한한 양태이다.
(나)	갑: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라. 그러면 ㉠. 을: 자연을 이성적으로 관조하라. 그러면 ㉡.

- ① 정념으로부터 해방되어 평온한 삶을 영위할 것이다
- ② 인격신의 섭리에 귀의하여 성스러움을 얻을 것이다
- ③ 공적인 삶에서 벗어나 개인적 쾌락을 획득할 것이다
- ④ 필연적 질서를 극복하여 행복한 삶을 향유할 것이다
- ⑤ 주체적 결단을 통해서 운명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갑은 스토아학파 사상가인 에픽테토스, 을은 스피노자이다.

정답 ①

20. 박은식의 유교 개혁론 이해 [3점] 정답 ④

제시문은 애국 계몽 운동 사상가인 박은식의 주장이다. ④ 박은식은 당시 옛 관습에만 젖어 시대적 흐름을 보지 못했던 유학자들을 비판하면서 신학문인 사회 진화론과 과학 사상 등을 적극 수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① 박은식은 양명학에 입각하여 유교를 개혁함으로써 유교 문화의 긍정적 요소를 국권 회복 운동에 활용해야 한다는 유교구신론(儒敎求新論)을 제시하였다. ② 박은식은 서양의 과학 기술을 배울 것을 주장하였다. ③ 박은식은 왕양명의 사상을 계승하여 양지를 타고난 것으로 본다. ⑤ 원불교에 대한 설명이다.